

한우 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3년 8월호

현장르포

소값회복 한우인 총궐기대회

알려드립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 폐업지원금 안내

기획특집

한우, 추석대목을 잡아라

포커스

한 · 육우 수급조절협의회

이슈

축산환경개선-가축분뇨 국회정책토론회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CONTENTS

한우자조금 2013. 08



현장르포 03-06

소값회복 한우인 총결기대회

알려드립니다 07

FTA피해보전직불금 · 폐업지원금 안내

포커스 08-09

한 · 육우 수급조절협의회

이슈 10-11

축산환경개선-가축분뇨 국화정책토론회

기획특집 12-14

한우, 추석대목을 잡아라

Information 15-18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KREI 축산관측 19

8월 한우 수급동향과 전망

Bravo! Life 20-22

- ① 여름휴가! 캠핑이 좋다~ 한우가 좋다
- ② 삼복의 유래와 여름철 한우보양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애독자코너 23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품 제9권 통권 제94호 발행일 2013년 8월 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아회관 3층 기획총무부, 홍보마케팅부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2층 교육조사부 Tel : 02-522-3607~8 Fax : 02-522-4314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 · 전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 소값 회복을 위한 대책 돌출 발빠른 대책 추진 관건

농림부, 농협과의 소값안정화 대책 협상 이끌어내



소값 하락에 대한 한우농가의 분노가 폭발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7월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값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임원의 식발투쟁과 6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이 후 소값회복 한우인 총결기 대회를 지난 7월 30일, 31일 양일간 음성 축산물공판장 앞에서 열고, 출하저지 투쟁을 진행해 정부와 농협으로부터 대책을 이끌어 내며 종료했다.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6일간 단식농성

7.24
~29

전국한우협회는 한우 가격 하락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7월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하고 정부와 농협에 한우산업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강우 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우농가들이 6년째

적자를 보고 있어 소값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값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장기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식발식을 진행하고 난 뒤 여의도 국민은행 앞 농성장에서 6일간 단식농성을 이어갔으며, 협상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7월 29일 정부와의 3차협상을 통해 암소 추가감축, 암소 노폐물 부산물 폐기 지원, 할인판매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협회 협의안



소값회복·출하저지 한우인 총궐기대

현장르포 

소값회복 한우인 총궐기대회

◇ 장소 : 음성공판장 앞

◇ 주최 : 전국한우협회



음성공판장 앞 출하저지 투쟁 전개

7.30
~31

한편 한우협회는 농협을 대상으로 출하예약제 개선과 사료값 인하를 요구하며 지난 7월 30일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4,000여명의 한우농가가 모여 소값회복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는 7월 31일까지 이어져 경북, 충북, 충남의 3,000여명의 협회소속농가가 참석해 강도 높게 투쟁했다.

7월 31일 집회 중 한우협회는 농협측과 협의를 진행해 올해 한우 소비촉진 행사로 농협 자체자금 680억원 지원, 출하예약제를 30개월령 이상 분포도 기준안 마련, 안심한우 일일 100마리 구매등을 협상했다.

▶ 참고 : 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 합의안

협상을 진행한 조위필 대책위원회 위원장(한우협회 부회장)은 “소값 회복을 위한 농협의 노력을 약속받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출하예약제

개선을 통해 한우농가의 불편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홍길 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은 “농협측과 사료값 협의 때문에 난항이 있었고, 이를 관철시키지 못해 회원 농가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소비촉진 등 약속을 이끌어 내어, 이를 통해 한우가격이 회복된다면 이것으로서 성과를 볼 수도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만족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상단의 발표이후 평화적으로 집회를 해산하고, 8

월 1일 경기·강원·전북 8월 2일 경남·전남·울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출하저지 투쟁을 전면 취하였다.

이강우 한우협회장은 “정부, 농협의 한우산업 회복에 대한 대책마련을 환영하며, 이들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어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4만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협회 협의안

가. 생산조정

암소 추가감축 추진

- ◆ 전문가, 생산자단체와 물량·시기 협의·결정
 - * 경산우 30만원/1두, 미경산우 50만원/1두
 - * 30천두 감축 시 약 90억원, 50천두 감축 시 150억원(축발기금) 소요

나. 소비촉진

1 한우고기 할인판매 확대

- ◆ (기존사업 확대) 농협 및 한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할인행사의 판매규모 확대(농협은 자체자금 활용)
- ◆ (신규수요 창출) 기업 단체급식 시 수입육이 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차액 일부 지원 (자조금 활용)
 - * '12년 단체급식 수입산 쇠고기 사용량(농협 추정) : 4만6,000톤(380천마리 분량)
 - 육포, 조미료 등 육가공 활성화 및 프랜차이즈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확대
 - ※ 생산자 주도의 불우이웃 돕기행사 등 소비확대 방안도 검토

2 암소 노페우 부산물 폐기 지원

- ◆ 암소 노페우(예시 : 도체중 178kg 이하)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시장격리(랜더링) 추진(자조금 활용)
 - * 추진방법(안) :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일정월령 이상된 부산물(뼈 등)을 시장격리하는 방안

3 한우 자가소비(공동구매) 40만원/1두 지원

- ◆ 농가 또는 소비자들이 가정소비를 목적으로 소한마리를 공동구매 할 경우 부대비용(도축비 등) (40만원/1두) 지원

4 한우고기 군납물량 확대

다.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관리

1 생산자-유통업체-농식품부 합의(7월 26일) 후속조치

- ◆ 생산량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산물(한우 등) 생산농가를 위한 특판행사 적극 실시
- ◆ 유통업체는 농업인단체가 자사매장내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할 있도록 협조하고, 정부는 직매장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
- ◆ 유통업체 의무휴무기간중 농업인단체가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시설 일부 개방

2 기타 직거래 확대

- ◆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신규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75백만원/1대) 구입 지원
- ◆ 로컬푸드형 직매장('13년 신규 30개소) 설치 지원시 축산물 판매시설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설 직거래 장터 설치 확대('12 : 151개소 → '13 : 170)

3 민·관 공동 수급조절협의회 운영 활성화

- ◆ 한우협회 주관으로 수급조절협의회(총 15인)에서 매 분기별로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수급상황별 정부 및 생산자의 대응수단 구체화
- ◆ 한·육우 관측모형 개선 및 관측시기 단축(현행 : 매분기 → 개선 : 매월)하고, 농가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리후렛,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미래 수급예측 기능 강화

라.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❶ 일률적으로 등급 표시하는 갈비에 대하여 구이용, 찜·탕용으로 구분하고, 찜·탕용은 등급표시에서 제외 추진 (식약처 협조, 표시기준 고시 개정)
 - * 갈비판매 활성화로 2~3등급 도매가격 상승과 암소 도매가격 하락 방지 효과
- ❷ 조사료 지급기반 확충(재배면적 : '12년 27만ha → '13년 35 → '14년 37)을 위해 발직불금 지급대상에 이모작 사료작물도 포함
 - * '13년 동계작물에 대하여 '14년부터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하반기)
- ❸ 원활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억원 → 2억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13.9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 합의안

1. 7월 31일 음성공판장 소 출하중단

- ◆ 한우협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7월 31일 소 출하 입고를 중단하겠음

2. 한우 거세우 30개월령 이상을 출하예약물량 배정 시 반영

- ◆ 현행 출하예약 물량 산출시 “지역별 사육두수”를 감안해 배정했는데, “30개월령 이상”을 기준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한우농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출하예약제가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음



3. 농협 안심한우 구매물량 증대

- ◆ 농협 안심한우 구매물량을 일일 100두로 증대시켜 한우가격이 상승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4. 한우가격 지지를 위한 소비촉진자금 680억원을 농협 자체자금으로 지원하여 가격을 지지하겠음

- ◆ 680억원의 자금을 조합에 지원하여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단위 한우 소비촉진 할인행사 실시
 - 조합이 손실발생을 이유로 소비촉진 행사를 기피하는 것을 차단하여 실질적인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5. 출하예약후 취소시 패널티 개선

- ◆ 3일전 유선 전화로 취소 의사 전달시 패널티 없애도록 조치

FTA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지원금 신청안내

9월 21일까지 시·군·구청으로 지급 신청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한우 및 송아지에 대한 사업 시행지침을 보완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해당양식을 작성해 시·군·구로 신청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지자체 심사 등을 거쳐 11월 8일까지 지급결정서를 통보하고, 11~12월에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요일정 안내

- 지급 신청 및 접수 기간 : 2013. 7. 22~9. 21
- 신청서 전산입력 및 현지조사 기간 : 2013. 7. 22~9. 25
- 심사위원회 심사 : 현지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 피해보전직불금 자금 요청기간 : 2013. 11. 1까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2013. 11. 8까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시기 : 2013. 11~12월

※ 신청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 FTA피해보전직불금 안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개체 및 농가는 '12년 3월 15일부터 '12년 12월 31일에 출하된 개체(이력제상 도축일 기준)로 도축검사 결과 불합격 개체(항생제 잔류,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식용으로 유통·사용될 수 없는 개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수 및 양도로 인해 사육자가 다수일 경우를 감안해 전체 사육기간 중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한우 송아지는 이력제상 출생일자 기준으로 '12년 3월 15일부터 '12년 12월 31일에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로 제한된다.

● 폐업지원금 안내

폐업 신청 시 농가당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은 한우의 회전율을 감안해 3년간 순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보완됐다. 산출기준식에서 사육마리수는 농가가 폐업을 신청한 일자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단 사육마리수는 2013년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2013.5.31)을 기준으로 사육마리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농가당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 = 사육마리수 × 회전율 × 마리당 연간 순수익액 × 3년

회전율은 한우가 매년 출하하지 않으므로 한우 수소가 0.55, 암소는 0.72를 적용해 1년 단위 출하계수를 통해 지원금을 확정했다. 또한 연간 순수익액은 비육우(수소) 마리당 49만2,000원, 한우 번식우(암소)는 41만7,000원으로 산출했다. 이력제 상 사육규모를 1차 확인한 후 현지조사를 통해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하는지 확인한다. 한편 폐업지원금 수령 대상 농가는 축산업 등록제 상 한우품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5년간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분야별 의견수렴...자율적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실질적인 소값회복 위한 대응책 마련 총력

효과적인 안정대책 위해 단기·중장기 대책으로 구분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체, 소비자단체, 학계, 정부 등이 소통을 통해 한·육우 수급조절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6월 27일 잠사회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박종수 충남대 교수를 협의회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한·육우 단기수급조절 대책에 대해 열린 논의를 벌였다



각계 소통으로 수급조절 방안 모색

수급조절협의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공급과잉으로 한·육우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절해 한·육우 가격회복, 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적정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각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서로 듣고 의견을 나누며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계의 의견이 함께 수렴되는 만큼 정책에 반영될 경우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우농가 폐업방지 빠른 해법 도출돼야

지난달 15일에 열린 제2차 회의의 핵심은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방안이다. 한우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폐업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나온 방안들도 중·장기 대책에 치우쳐 당장 폐업을 고심하는 농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다.

강성기 관리위원장은 “단기적 대책으로 구매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 없는 만큼 암소수매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으나 정부는 효율성, 예산 등의 문제 및 학교급식, 군납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피력했다. 또한 이 날 단기대책 중 하나로 출하예약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논의했으나 한우협회의 총괄기대회 당시 농협과의 협상이 이뤄져 출하예약제가 변경되어 운영될 방침이다.

부산물 적체 심각,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 시급

소값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유통업체는 부산물 적체가 심각하다고 손꼽는다. 등심과 안심의 가격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 사골, 우족 등 부산물

의 하락세는 심각하게 하다. 현재 국민 식생활 패턴 변화로 인해 부산물을 소비하지 않아 유통업체들은 더 이상 창고에 적재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하루빨리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우 부산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육성이 필요하며, 불안정한 가격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물의 가격을 제공해 식당 등의 가공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자조금을 통해 한우 부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강화하며, 한우고기의 원가 계산 시 부산물을 제외하는 방법도 검토됐다. 이밖에 한우농가와 판매업체간의 직거래를 위해 외식업중앙회와 공제조합을 통한 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수급조절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중단기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며, 지자체 축산담당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사업분야별로 TF팀을 운영할 방침이다.㉔

인터뷰

박종수 한우수급조절협의회장

새로운 소비처 확보, 피해보존 방안 강구돼야

정부와 자조금 공동지원 실효성있는 사업 추진을

공급과잉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업무 제휴 등 대규모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FTA 등 시장개방의 여파임을 감안해 수혜를 받은 해당 기업과의 조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조금이 있는 만큼 정부와 자조금이 공동지원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우를 애용하는 소비 수요가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처리 · 무허가 축사문제 환경부, 축산현장 고려 전향적 검토

가축분뇨법 토론회통해 농가의견 최대한 수렴

규제나 단속보다 컨설팅 · 교육에 집중 바람직

축산업계의 뜨거운 감자 가축분뇨처리와 무허가 축사 문제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축산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공동대표 홍문표 · 김춘진 · 김영록 의원) 주관으로 지난 7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축산환경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가축분뇨처리를 중심으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유승광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가축분뇨와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 이달 28일 가축분뇨법 공청회를 통해 농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축산농가의 의견이 유예기간 연장과 과징금 완화로 압축되는 것 같다”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농가 현실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 과장은 “이달 예정인 가축분뇨법 공청회를 통해 유예기간에 대한 농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



인터뷰 조위필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유예기간 연장 과징금 한도 낮춰달라”

환경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준비기간 필요

해 만족스러운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과징금 역시 축종별, 사육규모별 안을 따로 마련해 제시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위필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등을 중심으로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환경부가 유예기간과 과징금 한도를 두고 그동안 농가 입장을 배려해준 것을 알지만 축산현장이 아직 규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유예기간을 좀 더 연장하고, 과징금 한도를 낮춰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축산업이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환경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및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부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축산 현실을 감안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에너지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규제나 단속보다는 컨설팅과 교육에 집중하는 가운데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자원화 조직체 등과 함께 현장에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㉞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축산인들은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고 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식량자원을 생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러한 축산인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그간 축산업이 기여한 바가 크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어려운 현실은 생산농가의 책임이 되고 있으며 가축분뇨 문제 역시 생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규제하기 일쑤다. 축산업이 기여한 바를 차지하고라도 축산인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농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축분뇨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불법을 저지른다고 말하기 전에 축산농가의 현실을 이해하고,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 맡기는 방안도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복지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축산업이 농업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만큼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것 역시 농촌복지이며, 가축분뇨의 자원화도 농업, 농촌의 복지다.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농가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빠른 추석, 가격면에서 유리할 듯 과일가격 크게 올라 한우선물세트 대체수요 기대

농가, 근내지방 늘려 고급육 육성 ‘경쟁력 핵심’

고급 이미지 유지하면서 실속형 선물세트 마련

한우자조금, 판매행사 연계…냉장육 주문판매도 활성화

사료비 등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출하가격을 잘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목인 추석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을 받는 일은 그나마 어려운 농가에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번 추석은 평년보다 빨라 가격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수 성수기 이전이라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석선물세트로 쇠고기로 대체 수요가 증가하는가 하면 이에 대응한 업계의 판매 전략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풍에 따른 낙과피해까지 우려되어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유통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수요가 늘고 한우가격이 좋아진다고 해도 정작 제 값을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우가 좋은 가격을 받는 비결은 좋은 등급을 출하하는 것이다”며 사양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피하지방을 줄이고, 근내지방을 늘려 등급과 맛을 좋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이용 부위의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 쇠고기 소비형태를 고려하면 근내지방은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좋은 가격은 좋은 등급에서부터

황도연 축산물품질평가원 R&BD 센터장은 “농가가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 고급육 생산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등과는 엄연히 사육환경이 다르고, 사료값 등 생산비 부담마저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의 애기처럼 고급육을 포기하는 것은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뿐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피하지방을 줄이고, 근내지방을 늘리는 등 고급육을 잘 만들어 생산성을 높이는 게 농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량은 연간 40kg이며 이중 쇠고기는 10kg에 불과하다. 수입산을 제외한 국내산 비중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5kg밖에 소비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가운데 1만 마지자면 5kg의 10%인 500g미만으로 추정된다.

황 센터장은 “한우의 경쟁력은 보다 좋은 등급을 받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구이용 중심의 국내 소비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고급육이 중심이다”고 강조했다.

‘회복 전망’ 가격 인상요인 많아

이미 지난 설 성수기에 ‘명절불패’라는 말이 깨졌지만 이번 추석 성수기에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많아 유통업계의 관심이 추석 성수기 한우가격에 쏠리고 있다.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현재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평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육류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찬규 농협중앙회 하나로클럽 양재점 축산팀장은 “현재 한우가격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합

세에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지금처럼 수요가 늘어난다면 홍수출하만 주의해도 상당부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빠른 명절로 과일 수급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과일 선물세트와 가격대를 맞춘 10만원대 저가 한우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로 1등급으로 구성하며 국거리와 등심을 섞어 전체 가격을 낮추고, 부위별 소비 불균형까지 해소한다는 전략이다”고 덧붙였다.

추석시즌 판매 늘려야 이후 가격도 유지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한우 선물세트가 고가의 고급 선물이라는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실속형 선물세트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는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한우자조금을 통해 실시되는 행사와의 연계는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계와 생산자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는 육류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냉



장육 주문판매도 활성화 시킨다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일례로 소비자가 인터넷 등으로 주문요청 시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당일배송을 하는 방법 등으로 한우고기의 제대로 된 맛과 품질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통업체의 이러한 판매 전략은 한우소비 확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곧 추석 성수기에 판매되는 물량이 많아 추석이후에도 가격 상승 요인

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환 음성축산물공판장 경매사는 “수취가격을 높이는 방법은 개월 수를 잘 지키고, 좋은 사료를 먹이는 등 비육을 제대로 해 등급이 좋은 소를 출하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추석시즌 유통업체나 대형육가공업체의 재고량이 얼마나 소진되느냐에 따라 추석이후 가격까지 좌우되는 만큼 명절 판매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인터뷰

강성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한우산업 위기-소비촉진에서 답을 찾다

추석명절 직거래장터·할인행사 등 다양한 소비촉진활동

TV광고·제작협찬, 온라인 이벤트, 포스터 배포 등 마케팅 강화

한우산업이 봉괴직전에 있다.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소비가 매우 중요하다.

한우자조금은 소비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직거래장터를 꾸준히 추진해왔는데 개시한지 2시간 이내에 모두 판매되는 등 이제는 소비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마트와의 공동으로 진행한 할인판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과 4월 대형마트 3사의 할인판매 결과를 보면 작년 대비 약 257%의 판매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소비촉진활동은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8, 9월에도 진행된다. 우선 농협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추석 선물세트를 오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21%~56%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실속형인 5만원 대부터 31만원까지 총 11종이 선보인다. 직거래장터 또한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오는 9월 10일부터 3일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장터가 열리며 울산에서도 한우의 날을 기념하는 직거래 장터가 9월 9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우지킴이 이승기가 출연하는 TV광고는 ‘올 추석에도 한우’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새롭게 전파를 탈 계획이며 한우 선물세트 관련 온라인 이벤트와 함께 온라인 광고가 병행될 계획이다. 또 주요 TV프로그램에 대해 협찬을 통해 한우를 지속적으로 알리기에 나서며 추석 선물세트 포스터 3만부를 제작하여 축산기업중앙회와 연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동구매 활동인 ‘한우 자가소비’ 프로그램을 개발, 추석시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우자조금, 한우홍보강화 절실히 예산 증액 제 5차 관리위원회 개최...사업계획 변경 승인



한우자조금은 지난 7월 26일 관리위원회를 열어 한우홍보 강화를 위해 예산을 더 투입하고자 의결했다. 이날 관리위원회는 떨어진 소값의 회복책으로 홍보강화를 선택, TV, 라디오 광고비를 448백만원, 온라인광고 196백만원, TV제작협찬 100백만

원, 소비홍보 및 PR대행 100백만원 등 홍보에 840백여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제규정도 개정했다. 수급안정을 위해 230백여만원, 조사연구 150백여만원을 증액하고, 자조금 사업 중 한우협회가 대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기존 3.5%의 수수료를 5%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우협회에서 맡았던 한우자조금소식지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우자조금은 한우사육마리수 과잉을 해소하고, 한우의 소비촉진을 통한 한우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유통부(가칭)'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의결했다.

8월 HACCP교육 안내

한우자조금에서는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HACCP 교육'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총 교육비 8만원 중 농가 자부담 1만6,000원, 자조금이 6만4,000원을 지원하는 이번 교육은 '축

산업등록증'과 각 지역 한우협회 시군지부장 명의의 '추천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자조금의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 8월 시행되는 지역별 HACCP 교육은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된다.

일 시	정원	장 소	소 재
8.13(화) 10:00 ~ 15:00	70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충남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432번지
8.14(수) 09:00 ~ 13:00	70	당진축협 본점	충남 당진시 읍내동 106-1번지
8.27(화) 09:00 ~ 13:00	60	순정축협 정읍지점	전북 정읍시 명륜길 9번지
8.28(수) 09:00 ~ 13:00	70	함평축협 한우프라자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7번지
8.29(목) 09:00 ~ 13:00	70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센터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1-15번지

제6회 한우문화 공모전 시상식

한우자조금, 총 500여점 작품 응모

광고디자인 · 한우송 · 사진 3개부문 54개팀 선정



▲ 광고부문 은상(김채은)



▲ 광고부문 은상(오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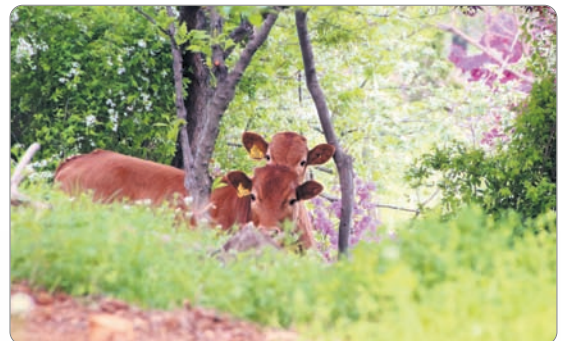
한우자조금은 지난 7월 11일 한우자조금 사무국에서 '제6회 한우문화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출품 부문으로는 광고디자인, 한우송, 사진의 3개 부문으로 총 500여팀이 참가한 이번 공모전에는 창의성, 활용도, 완성도의 기준으로 2차에 거친 심사를 통해 총 54팀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780만원의 상금과 한우세트, 상장이 수여됐으며, 주요 수상작은 한우송 부문은 경쾌한 음률과 간결한 가사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정 훈 씨가 금상을 차지했고, 디자인 부문은 금상없이 '한우는 사랑입니다'를 출품한 오하림, 김혜림

씨,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맛의 유혹'을 출품한 김채은 씨가 은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한우가 있는 풍경'을 소재로 사진부문에 출품한 김연태 씨가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성기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이번 한우문화 공모전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한우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꾸준한 공모전 개최는 물론, 소비자와 더 가까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한우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상작들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 한우자조금은 지난 7월 11일 한우문화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 사진부문 금상(김연태)

미경산우 품평회 결과발표 · 시상식 · 국제심포지엄

유전적 개량 기본 ‘미경산우 시장’ 개척해야 한우산업 생존전략 개발 국제심포지엄도 개최



지난 6월 13일 개최한 미경산우 품평회의 결과 발표, 시상식 및 한우산업 생존전략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7월 23일 전북대에서 개최했다.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전북한우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미경산 한우 브랜드는 새로운 시장개척은 물론 사육두수 조절 일조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규성 위원장을 비롯해 유성엽 의원과 한우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조강연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축산경영과장이 ‘한우 산지가격 안정대책’을 주제로 강연하여 단기대책으로 소비촉진 확대와 미경산우 브랜드 개발 지원 등을 밝히고, 중장기대책으로 조사료 공급확대 및 축산물 수급관리 방안 등에 대해 말했다. 이후 ‘일본 화우산업과 한우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북해도 소재 낙농학원 유경희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져 일본 화우산업을 소개하고, 향후 다양한 요소(맛, 안전성, 기능성, 환경배려 등)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경산우는 한우사육마릿수 조절의 화두

특히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인 미경산 한우 브랜드화는 고급육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동시에 한우사육마릿수 조절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토론자로 나선 단풍미인한우 김준영 대표는 “번식우군에 편입되지 못하고 도태될 수 밖에 없는 한우 암송아지를 체계적인 비육프로그램에 접목해 육질이 우수한 미경산한우고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이반농장 이근수 대표는 “미경산우 브랜드화를 통해 국내외의 최고급육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한우 마릿수 수급조절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순천대 서강석 교수는 “미경산우 브랜드 전략으로 유전적 자질이 우수한 암소는 계속해서 자손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적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는 비육해 고기소로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주진안장수축협 권광열 조합장 역시 “미경산우 브랜드화는 사육기간 약화의 부작용 없이 사육마릿수 조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이전에 미경산우 품평회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최우수상을 받은 정용길 농가는 시상금 전액을 전북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북한우협회에 기증했다. ☺



▲ 미경산우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정용길 농가(우)

경북도지회-대구시교육청 한우공급 MOU 체결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는 지난 7월 18일 대구교육청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해 대구교육청과 협약 후 두 번째로 대구교육청 관내 학교에 매년 1등급 한우고기 1억원어치를 제공하게 된다.

도지회는 또 한우 사육과 도축 등 생산, 유통단계에서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등 양질의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협회는 시교육청에서는 한우맛체험 행사 희망학교를 신청받아 한우협회



회원농가들이 출하한 한우고기로 학생들의 한우 맛 체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한우자조금 소비촉진 PPL



7월 4일 KBS2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아이돌 특집 '아간매집' 코너에 한우선물세트를 협찬하여 한우선물세트를 받기 위한 아이돌의 치열한 요리소개가 이뤄졌으며 한우고기를 보고 감탄하는 아이돌의 모습을 노출시켜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7월 24일 KBS2 비타민

한국인의 대표 보양식인 한우로 만드는 다양한 보양식 요리를 소개하며 올여름에는 한우로 원기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한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한우가 수입육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맛과 영양, 면역력 증진과 성인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6. 26 서울 선유고



7. 4 경기 고양 원당초



7. 5 강원 양양 양양초



7. 5 부산 부곡초



7. 9 충남 예산 중앙초



7.15 전남 영암 영암고

축 산 관 측

8월 한우수급 동향과 전망

사육마릿수 감소, 한우가격 전년대비 약보합세 전망

6월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작년(311만마리)대비 14% 감소한 306만4,000마리로 가임암소는 작년(131만마리)보다 4.9% 감소한 124만마리다. 1~6월까지 한우도축마릿수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45만4,000마리로 암소는 24만8,000마리(전년대비 35.2% 증가), 거세우는 19만1,000마리(12.5% 증가)이다. ㉔

♣ 가격동향

송아지 : 작년 12월대비 6월 송아지 가격은 약 20만원 상승하여 다소 회복했다.

▷ (암송아지) 마리당 1,030천원 수준에서 보합세 유지

* ('13.6월)1,039천원 → (7월 초순)1,030천원 → (7.31)1,011천원

▷ (수송아지) 마리당 170~180만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 ('13.6월)1,811천원 → (7월 초순)1,823천원 → (7.31)1,839천원

큰 소 : 쇠고기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추석까지 상승이후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9월(13,000~14,000원/kg, 465~501만원), 10~12월(12,600~12,800원 수준/kg)

◆ 비육우 마리당 소득 추정(7월 도매가격 기준)

(단위 : 천원)

등급	도매가격(원/kg)	가격(A)(600kg)	2012년 경영비(B)(600kg)	소득(A-B)
1++	16,807	6,040	4,630	1,410
1+	14,370	5,165		535
1	12,697	4,563		-67
2	10,730	3,856		-774
3	8,267	2,971		-1,659

◆ 한우 가격 및 출하동향(7월 기준) - 국내 소 도축 / 출하 현황 및 쇠고기 가격

(단위 : 원/kg)

구 분			평년 (‘08~12)	2012년		2013년		대비	
				6월(A)	7월(B)	6월(C)	7월(D)	C/A	D/B
도축마릿수(마리) (일평균도축마릿수)			654,734 (2,480)	60,174 (3,009)	62,640 (2,847)	62,613 (3,295)	70,213 (3,053)	4.1 (9.5)	12.1 (7.2)
경매마릿수(마리) (일평균경매마릿수)			246,000 (932)	28,841 (1,442)	30,412 (1,382)	32,548 (1,713)	39,309 (1,709)	12.9 (18.8)	29.3 (23.7)
도매시장 경락가격 (농가수취가격)	평균		5,076	4,659	4,420	4,223	4,312	-9.4	-2.4
가축시장 거래가격	암소		4,442	3,655	3,455	3,190	3,238	-12.7	-6.3
	송아지	암	1,983	1,244	1,120	1,039	1,019	-16.5	-9.0
		수	2,124	1,867	1,780	1,811	1,835	-3.0	3.1
한우 불고기(1등급/kg)			33,287	31,970	30,910	29,810	29,300	-6.8	-5.2
한우 등심(1등급/kg)			64,477	57,030	61,820	59,480	58,940	4.3	-4.7

여름휴가! 캠핑이 좋다~ 한우가 좋다

자연과의 교감...가족과 함께라 더욱 즐거운 캠핑
한우요리로 건강한 여름 즐기세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아직까지 어디로 떠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캠핑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연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아웃도어인 캠핑이 각광받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3년 전인 2010년 2,000억원 규모였던 캠핑용품 시장이 올해는 4,000억원을 넘어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의 캠핑장도 450여 개나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의 묘미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비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위한 필수 캠핑 용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핀다면 캠핑의 즐거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용품뿐 아니라 캠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먹거리다. 제대로 된 '캠핑요리'를 준비해 알찬 캠핑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캠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요리는 바로 '바비큐'다. 바비큐는 각종 재료를 꼬챙이에 꿰거나 석쇠에 놓고 불에 직접 구워서 원하는 소스로 먹는 야외요리다. 이전에는 삼겹살 바비큐가 가장 인기가 좋았지만 요즘엔 돼지고기에 쇠고기, 닭고



기는 물론 제철 해산물에 제철 채소까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다. 이 중 단연 으뜸은 우리한우. 풍부한 영양소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한우와 함께 캠핑의 묘미를 만끽하고 여름을 건강하게 즐기는 건 어떨까. 휴가지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한우 요리를 소개한다. ☺



입맛당기는 한우 캠핑요리



채끝 가지구이

부드러움과 쫄깃함이 조화를 이루며 구우면 단맛이 나는 채끝살은 그릴요리용으로 제격이다. 여름 햇살을 가득 머금어 맛과 영양이 풍부해진 가지를 곁들여 구우면 색다른 그릴을 즐길 수 있다. 가지는 수분을 94%나 머금고 있고 칼로리가 낮아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다.



등심 카레라이스

누구나 만들기 쉽고 맛도 있어 카레는 휴가지에서 사랑받는 메뉴중 하나다. 등심과 준비해온 재료를 쓱쓱 손질해 볶고 물과 카레를 넣어 끓이기만 하면 사라졌던 입맛까지 돌아오게 하는 맛있는 요리가 완성된다. 특히 조리에 서툰 남자들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차돌박이 강된장찌개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만든 강된장찌개는 느끼한 입맛을 잡아주는 일품요리다. 한우 차돌박이로 맛을 내 더욱 감칠맛이 난다.

삼복더위 게 섰거라~ 한우보양식 나가신다

한우양지로 푹 고아낸 육개장에 민어매운탕까지

삼복(三伏)은 일년 중 가장 더운 때로, 중국의 진나라 때 덕 공이란 인물이 삼복 때 개를 잡아 사대문 안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 유래가 돼 복날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 역시 삼복 때는 보양식 등으로 더위에 지친 몸을 보호했으며, 강이나 계곡 등으로 피서를 떠났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었을 정도로 몹시 더운 삼복에 지친 몸을 치유하고 마음까지 건강하게 해주는 보양식을 알아보자.

〈출처 : 음식 · 요리정보사이트 FOODWIDE〉

삼복의 어원

삼복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 있는 속절(俗節)이다. 태양력에 따른 24절기 중에서 복날을 정하는 기준은 하지와 입추이다. 초복은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이고, 중복은 네 번째 경일이다. 또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다. 초복과 중복, 말복은 10일 간격이나 종종 입추가 늦어질 때는 말복도 따라 늦어지기도 한다.

삼복의 풍속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더위를 이겨 내라는 뜻에서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빙표(氷票)를 주어 관의 장빙고에 가서 얼음을 타가게 했다. 복중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여름 과일을 즐기고, 어른들은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산간계곡으로 들어가 탁족(濯足)을 하면서 하루를 즐긴다. 한편으로 해안지방에서는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한다.

삼복의 음식

복 음식으로 삼계탕, 개장국(보신탕), 육개장, 선

지해장국, 사골곰탕, 임자수탕, 민어매운탕, 팔죽 등이 있다.

육개장

민간인은 개장국을 먹고 관리층에서는 육개장을 먹었다. 육개장은 한우 양지머리 부분을 오래도록 푹 삶아 찢어서 매운 양념을 해 다시 국물에 넣고 끓인다. 여기에 파를 큼직하게 갈라 넉넉히 넣고 고춧가루를 기름에 개어 넣어 맵게 끓인 국이다. 매운 국은 간이 잘 맞아야 맛있고, 파는 끓는 물에 슬쩍 데쳐 넣는다. 건지로 고사리, 토란대, 숙주 등을 넣기도 한다.

민어매운탕

민어는 6월이 가장 기름져 맛있고 애호박도 그때가 제철이다. 민어 매운탕은 한우 사태나 양지머리를 푹 고아 고추장을 풀어 넣은 장국에 민어와 도톰하게 썰어 넣은 호박을 넣고 파, 마늘, 생강 등으로 양념하여 끓여 낸다. 한여름 쌈에 곁들여 먹으면 뜨겁고 얼큰한 것이 일품이다. ㉮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하세요

75세이상 어르신 5~6월 보건소 접종 완료
11월부터 65세이상으로 확대...1회 접종이면 충분

〈출처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5월부터 6월 두 달간은 75세이상 어르신을 먼저 예방접종했고, 오는 11월부터는 접종연령을 65세이상으로 확대해 2014년이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7~10월에는 후반기 접종 준비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잠시 중단 예정

예방접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별로 접종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보건소에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이번 예방접종은 노년층에서 폐렴구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합병증인 패혈증, 뇌수막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예방접종 사업으로 그간 노년층에

서 발생과 사망률이 높았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이 감소해 어르신 건강 보호

는 물론, 질병부담을 낮추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근량 예방접종관리과 과장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한번만 접종받으면 되고, 올해 뿐 아니라 2014년 이후에도 연중 언제나 접종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안전한 접종을 위해 평소 아픈 증상을 사전예진 표에 상세히 작성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면서 쇼크와 같은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한 후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애독자코너

한우자조금에서는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HACCP 교육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교육비 8만원 중 자부담은 1만6,000원이고, 자조금이 6만4,000원을 지원하는 이번교육은 반드시 000000과 각 지역의 한우협회 시군지부장 명의의 000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교육 참석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은 무엇 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 소식지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7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최영래(전남 영암군), 손주희(충북 보은군), 임종대(경북 의성군),
고현(경기 김포시), 김영상(강원 양구군), 정병덕(전북 부안군)

복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는 누가 언제 어디서 키우고
판매되는지를 알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체계화된
안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우(이력)라벨**에서 확인하세요

한우등심

원산지 : 국내산 한우

등급 : (1++) 1+ 1 2 3 등외

개체 식별번호 002021861577

www.mtrace.go.kr

사육지: 경기(안성) 사육농가: 김한우

품종: 한우알소 도축장: 부천 축산물 공판장

*보관방법: 냉장육 (-2℃~10℃ 냉장보관)